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시부터 보도 가능	배포	2017.4.21(금)
책 임 자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(02-2100-2660)	담 당 자	전 은 주 사무관 (02-2100-2662)	
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장 준 경(02-3145-7580)		석 준 원 팀장 (02-3145-7616)	
	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김 영 진(02-3145-6700)		정 병 찬 부국장 (02-3145-6702)	

제 목 :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을 위한 「금융투자업규정」 개정·시행

1. 추진경과

☐ 계열사 투자부적격 증권(펀드 등) 편입 제한 규제 등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*함에 따라 '금융투자업규정' 개정을 통하여 효력을 연장함**

- * ① 펀드 판매사의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 한도 50%(~'17.4.22)
- ②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투자권유 제한(~'17.10.22)
- ③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 부적격 증권 펀드·신탁·일일 편입 제한(~'17.10.22)

** 규정변경예고('17.3.14.~3.24.), 제7차 금융위원회 상정·의결('17.4.19.)

2. 주요내용

☐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계열사간 거래집중규제 필요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련 규정의 효력을 **2년간 추가 연장**

①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(신규 판매 50%) 설정

- 계열사 펀드 판매(누적) 비중이 '16년말 **42.2%로 여전히 높고**, 특히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계열사 판매(누적) 비중도 54%에 이르고 있어** 개선이 지속 필요

* 계열판매(누적) 비중(%): ('12말) 47.8('13말) 48.6('14말) 44.9('15말) 42.9('16말) 42.2

**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 중 계열판매 비중 50% 미만은 3개사에 불과

② 계열사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증권(펀드 등) 편입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금지

- 대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, 美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거 동양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동 규제를 당분간 유지

3. 향후 계획

☐ 동 개정 규정은 고시('17.4.21.) 후 즉시 시행 예정
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 prfsc@korea.kr


 넓게 들었습니다
 바르게 알리겠습니다